

쌀·과일·쇠고기 경쟁력 키운다

농진청 올 업무계획 고품질 벼 10종 개발·한우 1등급 쇠고기 출현율 높여 개방 대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개방에 대비해 쌀과 과일, 육류 등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한다.

27일 발표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진청은 기존 삼광·운광·고품·호품 등 4개 품종 이외 올해 새로운 최고품질 벼 품종을 개발하고, 오는 2009년까지 10개의 최고품질 벼 품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쌀 수확 후 품질 관리를 위해 시군 단위 쌀 품질관리실도 현재 10개에서 올해 말까지 20개로 늘리고, 브랜드 쌀의 완전미율도 89.0%에서 90%로 높인다.

단백질 함량이 6.5%를 밟들고 완전미율이 95%를 넘는 최상품 쌀을 브랜드화

한 '탑 라이스' 시범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33개 단지에서 각 50~100ha 규모로 진행된다.

과일의 경우 껌질째 먹는 배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7가지 품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사과·배 등 주요 과일에 대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등급 규격화를 추진한다.

당도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최고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탑프루트'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작년에는 504㏊ 면적에 418농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 사과·배·포도·감귤을 재배했으나 올해는 세배면적과 참여농가가 각각 550㏊, 460농가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최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은 지난해 14.9%에서 올해 25%로 높아

진다.

전문가 협의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은 단감과 복숭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농진청은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도 힘써 한우의 1등급 쇠고기 출현율을 지난해 71.3%에서 73%로 높이고 DNA 검사를 통한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간별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

돼지의 만성소모성 질병을 줄이기 위해 사육환경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제 개발 등에 주력하고, 5계통의 재래 닭 2만5천수를 농가에 보급한다.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육성 품종의 장미와 팔기 보급도 확대한다. 장미의 경우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비

▲완전미율= 병충해 등으로 깨지거나 색깔이 변한 낙알을 제외한 온전한 쌀의 비율을 뜻 한다.

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4%로, 팔기는 18%에서 22%로 각각 높인다.

농업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확보한 농업유전자원 수를 지난해 23만4천점에서 올해 24만6천점, 오는 2010년 28만1천점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 벼·고추·들깨 등 16개 작물 48종에 대해 유전자변형(GM) 작물 개발을 추진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DDA) 타결시 시장개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2000년대 들어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 위해소중점 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등의 안전성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러나 식품안전의 위험 관리, 위험평가, 위험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농약·황생제의 안전 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위반하는 농가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부처간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 식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전문농약 및 친환경농약 개발지원 ▲증금속과 미생물 등 위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폐관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먹거리 50% 이상 수입 의존

"식품안전위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농수산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위반업체에 대한 삼진(3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식품안전처(가칭)를 설치해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항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한국해양 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농수산 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 28일 토론회에 앞서 27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최 박사는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은 1998년 이후 2배 증가하면서 먹거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위생취약국인 중국산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FTA나 도하게 발어졌다

軍 현역병 휴대전화 이용정지 요금

내달부터 최고 780원 인하

4월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기본요금(3천850원~4천400원)에서 매월 780원(SKT), 540원(KTF·LGT)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으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 추천을 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 등을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여 받은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경제 중년의 위기 빠졌다"

FT, 수출·제조업 편중·각종 규제에 역동성 상실

아시아 경제의 대표적 성공신화로 꼽힐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때이른 '중년(中年)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주장했다.

FT는 '한국의 때이른 중년(中年)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춘(回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화위기를 딛고 일어섰지만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로 잠재 성장률을 이하이며,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에 의해 경제기반을 바르게 잠식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기피증'

은 외국 자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한 노동력,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기반시설,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유수의 기업 등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이처럼 흔들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원인에 대해 이 신문은, 우선 한국이 일본식 모델을 오래 전부터 추구해왔으나 일본식 모델의 약점은 너무 많이 모방한 반면 강점은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제조업이 일부 업종에만 편중돼 있으며, 내수 가격력을 잊고 규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정보 보안 실시간 파악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주최 '제3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가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주)이글루시큐리티시가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의 옵션 기능인 보안이벤트 시각화 기술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기술은 다양하고 방대한 보안이벤트 등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직장 기혼여성 절반이상

"출산 뒤 불이익 경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 절반이 이상이 출산 이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최근 20~30대 기혼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 852명을 상대로 '출산이 사회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출산경험이 있는 420명 중 54.29%가 '출산 이후 직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출산 이후 당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퇴사 권고'(34.21%), '승진시 불이익'(17.11%), '연봉 동결 및 삭감'(13.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대답이 44.74%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했다'는 응답이 42.11%로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같은 조건일 경우 출산 여부가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51.76%), '그렇다'(40.14%) 등 응답자의 91.90%가 사회생활에 출산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직장인 자기계발 투자

40%가 "월 5만원 미만"

코오롱그룹은 최근 임직원 554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 등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회 1시간씩의 시간을 할애하고 매월 5만원 미만 범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자기계발 투자시간은 일주일에 3회 1시간씩(36.5%)에 이어 매일 1시간 이상씩이 27.0%로 뒤를 이었으며 그밖에 주말에 매 1~2시간씩(23.9%), 거의 하지 않는다(12.5%) 등의 순이었다.

투자비용은 5만원 미만(39.3%), 5만 이상~10만원 미만(32.5%), 10만 이상~15만원 미만(12.9%), 15만원 이상(7.3%), 전혀 안쓴다(7.0%) 등이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는 물음에는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질 때'가 33.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자기계발 방법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서적 숙독이 36.6%로 으뜸으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이용한다(30.4%)거나 학원을 다닌다(15.2%)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윤종용 부회장 세계 30대 최고 기업인

美 경제 주간지 선정



은 가전 대기업

이 될 것으로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윤 부회장 덕분에 그런 날이 왔다. 삼성전자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 판매 실적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 역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이와타 사토루(47) = 2002년부터 니텐도의 CEO로 일하고 있다. 불과 1년여 전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차세대 게임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니텐도로선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와타는 혁신적인 게임기 '위(Wii)'를 출시해 이런 상황을 바꿔놓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민원)	마감일	연락처
㈜중인M&H	롯데마트 첨단점 삼성카마라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31	017-604-6487
㈜한양공업	[광주] 기술영업 책임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31	051-321-0005
㈜프렌즈	편집디자이너(액자디자인)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531-1206
동화신기(주)	총무/경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3/31	062-717-7213
㈜해피미디어	경영기획 사무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000~1200	03/31	062-373-2800
하나애드컴	광고 실사디자이너 채용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3/31	062-974-0041
㈜신리아피에이	CO2 융합원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3/31	011-9620-1708
코스테크(주)	[광주] 디지털프린팅 사원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2-578-6701
신진정밀(주)	[경력] 품질관리 사원채용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05	062-954-0951
코아통건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5	062-951-1493
이워홀	(주) 이워홀 사보센 수습 공채 및 경력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6	02-554-0851
㈜인포렉스	웹 서비스·온라인 게임 기획자 모집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06	062-380-8012
㈜남원	유체기계 해외 파견 A/S 요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2800~3000	04/06	062-225-9181
㈜광주립외국어사	도서 판매/입고 관리사원				